

지면안내

보도
다가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02

사회
도대체 입학금은
왜 내는거죠?

03



기획
경계너머 또 다른 경계,
문밖에 선 난민

04



사람사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관심은 나로부터"

05



학술
파괴는 예술적
창조의 시작

06

문화
게임에도 '수제품'이 있다.
인디게임의 세계

08



동정란

이창원(행정학과)교수
이 교수는 지난 9월 6일, 3년 임기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법인이사로 선임되었다.

김효용(응북합디자이닝학부)교수
김 교수는 오는 11월 26일, 12월 3일 양일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페어리드 총감독으로 지난 8월에 위촉되었다.

기자사령

퇴
이유정(영어영문 2)

가을과 함께 찾아온 우리학교의 축제, 대동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학교의 축제인 대동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라는 대동제의 의미를 살려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의 학생과 교환학생과 같은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축제 1일차에는 동아리 연합회가 주관하는 동아리 축제가 열린다. 본교의 각 동아리들은 거리 노래방과 플라마켓, 칵테일 바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앙무대에서 공연을 한다. 또한 야구초밥, 타코야키, 튀리스와 와플 등을 파는 4대의 푸드트럭이 입점한다. 푸드트럭은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선착순 무료제공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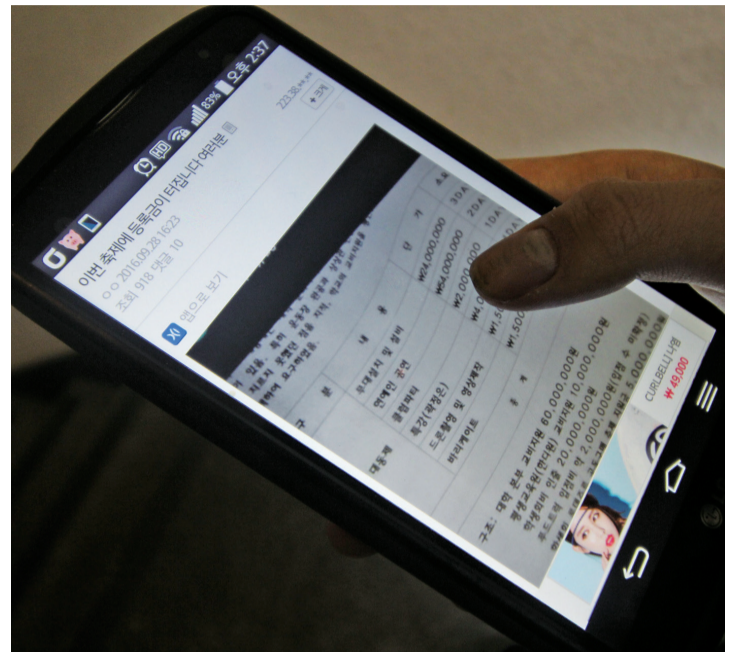
2일차 오후에는 광정은 작가의 특강이 있다. 그리고 한성대학교 방송국이 개최하는 낙산가요제가 상상관 앞 풋살장에서 열린다. 낙산가요제는 대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곡을 가져와서 경연을 벌이는 것이며, 초청 가수로 하이니와 딘이 온다. 상상관 농구코트에서는 클럽파티가 열리고, 선착순으로 무료입장을 할 계획이다. 클럽파티 때는 전문 DJ 2-3팀과 본교 학생의 공연이 있다. 그리고 각 학과의 주점은 오후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며, 다음날에도 열린다.

3일차에는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이 사회를 맡는 연예인 공연이 있다. 초청되는 연예인은 EXID, 사이먼 디, 민경훈이다. 손 회장은 "학우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학교 홍보대사 하랑, 기부단체인 성북푸드마켓과 비둘기봉사단, 국제교류팀이 미래관 앞 데크에서 바자회를 연다. 하랑과 기부단체에서는 여성리류, 타코야키, 핫도그 등을, 국제교류팀의 유학생들은 본국의 전통음식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수익은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불우이웃에게 기부된다. 한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학내 모든 프로그램들은 자정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연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바리케이트보다 충격에 강한 특수 바리케이트가 사용된다. 상상관 앞 광장에 있는 LCD 조명도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부상을 막기 위해 학생회 인원들이 주변을 통제한다. 손 회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여태까지 침체되었던 학내 분위기가 쇄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뒤에 학우 분들이 '역대급 축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스케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축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hansung.ac.kr



▲ 이번엔 유출된 문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다.

대의원총회 통해 유출된 축제 예산 계획

지난 9월 28일, 축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던 시기에 축제 예산 관련 문서가 유출되어 물의를 빚었다. 유출된 문서는 당시 계약이 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대의원총회에서 회의자료로 쓰였다. 대의원총회는 학생 참여가 가능한 회의이며, 비공개회의는 따로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 문서는 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자료로 쓰였으며, 누군가에 의해 문서 사진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최초 유포된 후, 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다. 하지만 총대의원회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지 않을 예정이다.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은 "외부 업체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총대의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hansung.ac.kr

본교 24일부터 전자출결시스템 본격 시행

본교는 24일부터 전자출결시스템을 시행 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부에서 이용하는 모든 강의실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전자출결시스템이란 교수가 학생을 직접 호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증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출결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본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학생들은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스마트폰안드로이드,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제한함으로써 한성대학교 스마트출결 어플을 실행시켜야한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블루투스'기능을 활용하여 강의실 안에서 출결처리를 할 수 있다. 비콘은 강의실정보를 사방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착된 반경 안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비콘신호를 잡고 출결처리를 한다. 김지호 학생지원팀 차장은 "대형 강의실인 미래관 DLC에서 비콘을 부착하고 테스트 해 본 결과, 해당 강의실 전 구역에서 통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블루투스 기능 이외에도 NFC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NFC 태그 방식은 학생들이 강의실 문 앞에 부착된 NFC기에 스마트폰을 직접 태그해야한다.

전자출결시스템이 스마트폰 이용을 전제하는 만큼, 학생들의 스마트폰이 꺼졌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학생들이 공결처리를 요하는 경우

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담당 강의 교강사에게 직접 출석인정을 요구해야한다. 교강사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온라인 출석부를 통해 학생들의 출결 체크가 가능하다. 특히 학생이 공결을 요구하는 경우, 인정여부는 교강사가 판단한다. 공결 인정 시, 학생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그 기간은 일주일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출결처리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각에 대한 기준 시각은 교강사가 0분에서 30분까지 조정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30분을 넘어서 강의실에 들어온 경우 무조건 결석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오전 1교시(09:00~09:50)부터 3교시(11:00~11:50)에 수업이 있는 학생이 09:35분에 강의실을 들어온 경우, 1교시는 결석으로 처리되며 2,3교시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3시간 수업이 15주 동안 진행되었을 시, 45시간 동안 수업에 참여한 출결사항이 점수로 환산되어 출결점수에 반영된다. 지각 3번은 결석 1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각이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본교에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인 만큼,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지호 차장은 "전자출결시스템 매뉴얼을 만들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장소를 상상관이나 탐구관에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현 기자 ehdvkl6392@hansung.ac.kr

2016 대동제 프로그램

(10월7일 기준)

일차	행사명	주관	장소	시간	내용
1일차 (10.12 수)	동아리 축제	동아리 연합회	거리 노래방 (연구관 앞 버스킹 존) 플라마켓 (상상관 앞 광장) 칵테일바 (상상관 앞 광장) 중앙무대 공연 (상상관 앞 광장)	거리노래방 (첫번째 공연: 12:00~13:30) 두번째 공연: 16:30~18:00) 플라마켓 (10:00~18:00) 칵테일바(18:00~24:00) 중앙무대 공연(18:30~22:30)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거리노래방 동아리들의 작업물, 사진, 엽서, 에코백 등을 판매하는 플라마켓 칵테일 판매 공연 분과 동아리들의 공연
	4대의 푸드트럭	총학생회	상상관 앞 풋살장	11:00 ~ 24:00	가격대: 5000원 상품: 불초밥, 샐러드, 타코야키, 추도그 등
2일차 (10.13 목)	광정은 특강	총학생회	상상관 203호	17:00 ~ 18:00(예정)	주제: 대학생에게 전하는 연애포스트
	낙산 가요제	HBS (한성대 방송국)	상상관 앞 풋살장	19:00 ~ 미정	초청가수: 하이니, 딘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곡으로 경쟁하는 가요제
	클럽파티	총학생회	상상관 농구코트	20:00 ~ 24:00	전문DJ 2~3팀(미정) 참여 본교 학생 재능기부 공연
	학과 주점	각 학과	우촌관 잔디밭~ 학생관 옆, 상상관 앞 일부	18:00 ~ 24:00	학과별 상이
3일차 (10.14 금)	4대의 푸드트럭	총학생회	상상관 앞 풋살장	11:00 ~ 24:00	상동
	연예인 공연	총학생회	상상관 앞 풋살장	20:30 ~ 22:00	EXID, 사이먼 디, 민경훈
	바자회	하랑, 성북푸드마켓, 비둘기봉사단	미래관 앞 데크	종일	여성리류, 타코야키, 핫도그, 국제교류팀 유학생-본국 전통음식 등을 판매
학과 주점	각 학과	우촌관잔디밭, 학생관, 상상관 앞 일부	18:00 ~ 24:00	학과별 상이	
4대의 푸드트럭	총학생회	상상관 앞	11:00 ~ 24:00	상동	

다가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컨설팅 후속과제 순조롭게 진행, 2기 위원회는 이달 말 출범

이런년도를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2014~2016)가 끝나고 2주기(2017~2019)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당초 2018년으로 예정했던 평가를 2017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2주기 평가를 위한 핵심기구인 '2기 위원회'가 늦어도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며, 후속이행과제 역시 대체로 수월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논란이 일었던 학사구조개편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컨설팅 이행과제 진행상황

교육부 컨설팅 이행과제	상세	진행상황
학사구조개편	대학특성화와 연계한 정원조정	완료
재정분야개선	교육비 환원을 제고를 위한 교육투자 확대	진행 중
학생지원 및 교육체계 개선	교사확보율 제고	완료
	수업관리 개선	완료
	학생평가의 합리성 제고	완료
	장학금 지급률 향상	진행 중
	졸업생 취업률 개선	진행 중
	교육수요자 만족도관리시스템 개선	완료
	취·창업 지원	완료
진로 및 상담 지원	완료	

우리학교 1주기 평가 진행과정

시작은 지난 2015년에 진행됐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였다. 우리 학교는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상인 D+를 받았다. 더욱이 이 결과는 학교가 A학점 비율을 줄이고 학과를 통합하는 정책을 단행한 뒤였다. 결과에 따라 우리대학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정부사업에 참가가 제한되며, 신입생들은 국가 장학금 II유형을 받지 못하는 규제를 받았다.

우리학교는 다른 재정지원제한 대학들과 함께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컨설팅에서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와 연계한 정원조정, 교육투자 확대, 교사확보, 수업관리 개선, 학생평가 합리화, 장학금 지급률과 졸업생 취업률의 개선 등을 우리학교에 요구했다.

우리학교는 이에 따라 대학특성화와 연계하여 '디자인'과 '공학'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했다. 또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의 건축기금을 출자하여 '상상관'을 건설했다.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비 환원을 끌어올렸으며, 수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출결 및 '블랙보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에 새로운 총장으로 취임한 이상한 총장은 기존의 학과를

대체하는 '트랙 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학사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총장은 간담회에서 "다음 평가에서는 A를 받아 실패를 만회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지난 9월 5일, 우리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전면해제'를 최종 확정 받았다. 이를 통해 우리 학교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은 과제는 거의 진행돼

현재 우리학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교육부 컨설팅 후속이행과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교육부 컨설팅 후속이행과제는 이미 교육부와 약속이 되어있는 것이기에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로서 우리학교는 대부분의 이행과제를 완수하고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과 같은 거시적인 목표와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전자출결'과 같은 과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의 취재결과 후속이행과제의 진행에 대해 전주상 기획협력처장은 "교육비 환원율 등의 과제는 교육부와 약속한 수준을 수월하게 넘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형용 학생처장 역시 "장학금 지급률은 교육부와 당초 약속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려왔다"고 답했다.

다. 더불어 이 처장은 "학생이력관리 시스템은 이미 거의 완성되었으며 곧 도입될 것"이라고 진행상황을 알렸다. 전자출결이 이달 24일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후속이행과제에서는 '취업률' 정도만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취업률은 경제상황도 영향을 끼치고, 지방에 비해 서울은 취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답하면서, 숨은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히든 캠퍼인'이나 '취업 페스티벌'과 같은 취업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취업률은 대학본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완전히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오는 2주기 평가는 어떻게?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2기 위원회'는 이달 말 전에 출범할 예정이다. 2기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구상을 모아 구체화시키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이다. 전 처장은 "본디 이보다는 빨리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중요한 기구만큼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재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의 재정

상황은 지난 1주기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전 처장은 "재원을 다원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정부사업이나 외부협력을 통한 외부재정을 확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 처장 역시 "기획협력처에서 재원만 마련해주면 학생처는 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이번 2주기평가에서 기존의 부족했던 지표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을 예정이다. 또한 학사구조개편 과정 역시 2기 위원회가 출범함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이 처장은 "장학금 지급율을 추가로 늘리고 장학금 지급과정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장학지수와 국제화 지수 등 다양한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학내 행정조직 역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편된다.

또한 이번 추진과정에서 저변과 같은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처장은 "예체능 인원을 추가로 줄이는 것은 논의조차 없다"고 밝히면서 "재정확충계획에도 등록금 인상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우리학교 #타임라인

학생상담센터, 2학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정

학생상담센터에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성장 ▲불안극복 ▲식습관 개선 ▲의사소통 ▲대인관계 향상 ▲나의 세슈얼리티 발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마다 각기 다른 일정으로 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학생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상담을 원하는 경우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8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룹을 이뤄 진행하는 맞춤형 집단 상담이 상시로 진행 중이다. 상담은 이성교제, 리더십 증진, 진로탐색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시간당 5point의 비교과 포인트가 주어지며, 개인 당 최대 100point까지 받을 수 있다.

장동진 학생상담센터 초빙교수는 "상담을 통해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제에 관한 여러 활동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성장을 촉진한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복학생 워크숍' 처음으로 열려

지난 9월 29일 교육행정지원팀 주최로 'Return to HANSUNG 복학생 워크숍(이하 워크숍)'이 미래관 DLC에서 개최됐다. 복학생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달라진 학사 정보'를 시작으로, '비교과 포인트' '학습역량개발 프로그램 안내', '진로 및 취업지원', '일학습병행제 및 장기현장실습 안내', '학술정보관 이용 교육',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개최목적에 대해 박철우 교육행정지원 팀장은 "학교 변화에 적응이 힘든 복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워크숍은 앞으로 매학기 주기적으로 치러질 예정"이라며 "접수는 복학 신청 기간 동안에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숍에 참가한 이승현(경제2) 학생은 "워크숍으로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동아리연합전시회 개최

지난달 23일에서부터 30일까지 동아리연합전시회인 'EXHIBITION PENTAGRAM'이 한성대학교 연구관 A&D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시각·영상 일러스트 동아리 HRT와 타이포그래피 동아리 한성타이포그래피연구회, 사진 동아리 PIG, 문학 동아리 이무기, 만화 동아리 매나니로가 참여하여 지난 학기동안 작업한 작품들을 공개했다.

HRT의 부원인 안나경(시각영상 3) 학생과 서성은(시각영상 3) 학생은 "모두 열심히 준비한만큼 많은 학생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전시회의 상황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구경오지는 않는다. 아마도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전시회 중 출판 전시물을 배포용으로 오인하고 일부 관람객이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한성타이포그래피연구회에서 는 가져간 전시물을 다시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우촌관 앞 기부현판 제막식 열려



지난 9월 26일 본교 우촌관 앞에서 '한성사랑 소나무길 기부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유동현 기자 ehdkvk6392@hansung.ac.kr

상상관 편의시설 언제 들어오나?

자판기는 미정, 외식업체는 '(주)팔고당' 선정

학생들이 상상관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강의, 조별과제 등을 위해 상상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상관에서는 현재 식사를 해결할 수도 음료를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문지원(경영 1) 학생은 "상상관이 학교 건물 중 가장 고층 건물인 만큼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현재 상상관은 자판기를 비롯한 편의시설이 없으며, 각 층별로 정

수기만 설치되어있는 상태이다.

현재 학교와 계약되어 있는 자판기 업체는 롯데주류이다. 작년 6월 맺은 계약에 상상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는 업체에 상상관 자판기 추가 설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신동규 학생지원팀 과장은 "학교 측은 업체에 발전기금과 복지기금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업체는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상이 결

렬되면 재계약이 진행되는 내년 6월 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 상상관 내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파악하기 어려워 위치 선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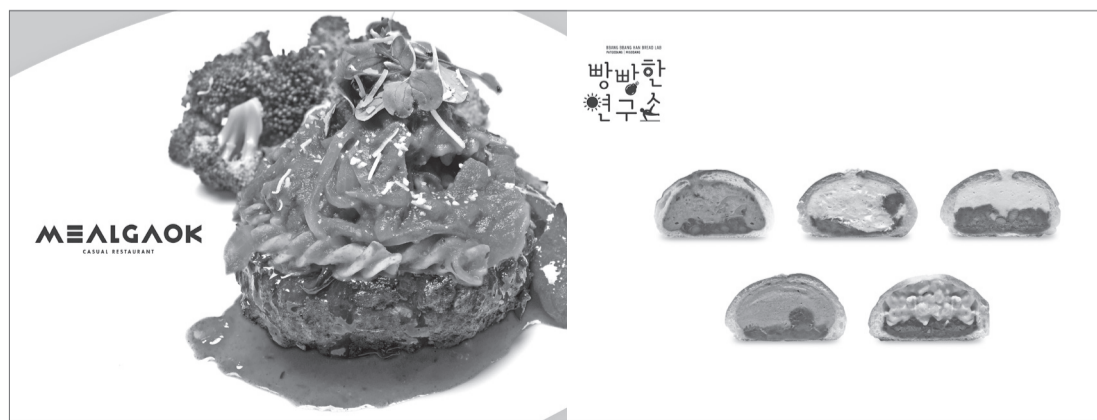
현재 상상관 2층과 12층의 편의시설 공간은 비어있는 상태이다. 새롭게 지어진 공간인 만큼 임점업체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과 기대가 크다. 9월 27일에 열린 선정위원회를

통해 3개 후보 업체 중 '(주)팔고당'을 선정했다. 선정위원회에는 학생처장, 학생지원팀장, 총무처장, 총무인사팀장, 학생복지위원회장, 총학생회장, 직원노조지부장, 교수협의회장이 참석해, 총 8명의 투표로 결정되었다.

'(주)팔고당'은 11월 3일, 2층에는 '빵빵한 연구소', 12층에는 '밀가옥'을 입점 시킬 예정이다. 2층의 '빵빵한 연구소'는 베이커리 카페로, 간단한 식사는 물론, 포장 및 선물도 가능하다. 샌드위치와 쿠키, 주세 디저트 등 각종 빵과 음료가 주메뉴이다. 12층의 '밀가옥'은 캐주얼 레스토랑이다. 메뉴는 햄박스테이크와 햄버거, 파니니, 샐러드 등이 있으며, 커피와 주스도 판매할 예정이다.

구자은 총무인사팀 과장은 "학생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체인 만큼 선정 기준을 품질, 안정, 서비스에 두었다.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출처: (주)팔고당

도대체 입학금은 왜 내야하는 거죠?

지난 22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청년단체 및 대학생들이 5개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제소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내는 '입학금'이 "대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입학금을 내는 것은 대학과 학생간의 일종의 쌍무계약이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은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

현재 입학금폐지운동이 대학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려대학교를 기점으로 입학금 상위 30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입학금을 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입학금폐지 운동에는 약 3000명이 서명하고, 소송에는

500명이 참여하는 등 그 관심이 뜨겁다.

대부분 대학, 입학금 지출 내역조차 없어
대학교육연구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80%가 입학금을 70만 원 이상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등록금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규모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어느 누구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

참여연대가 진행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 청구 결과, 공개에 응답한 28개 대학 중 20개 대학에서 입학금을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대학들은 입학금 납부를 일종의 관례로 생각해, 등록금에 포함시

켜 사용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이승준 입학금폐지운동대학본부 실천 단장은 "입학금의 용처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입학금 사용 내역을 공개한 일부 대학마저도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이 동일하다. 회계 내역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라며, 대학이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높은 금액의 입학금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부

교육부는 세 차례의 해명자료 등을 통해 동일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목적과 산정기준이 정당하고 사용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의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므로 등록금의 일부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또한 입학금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과 함께 책정되고 있으므로, 산정기준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학금이 현재 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처리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전한다.

이에 이승준 실천단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을 산정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을 산정할 때 금액이나 사용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입학금이 일종의 관례라고 생각해, 등록금 자체에 대한 논의만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이 가지는 포괄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다.



▲ 고려대학교에서 입학금 폐지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

고등교육법의 제11조 1항 자체가 대학이 학생들에게 눈먼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고등교육법에 정확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잘못된 법에 근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처도 모르는 돈을 걷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입학금의 해결방안은?

해결방안은 각각 대학과 교육부, 국회에 있었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통해 대학은 입학금을 실비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전한다. 현재 입학금은 과대 편성되어 있으며 입학에 필요한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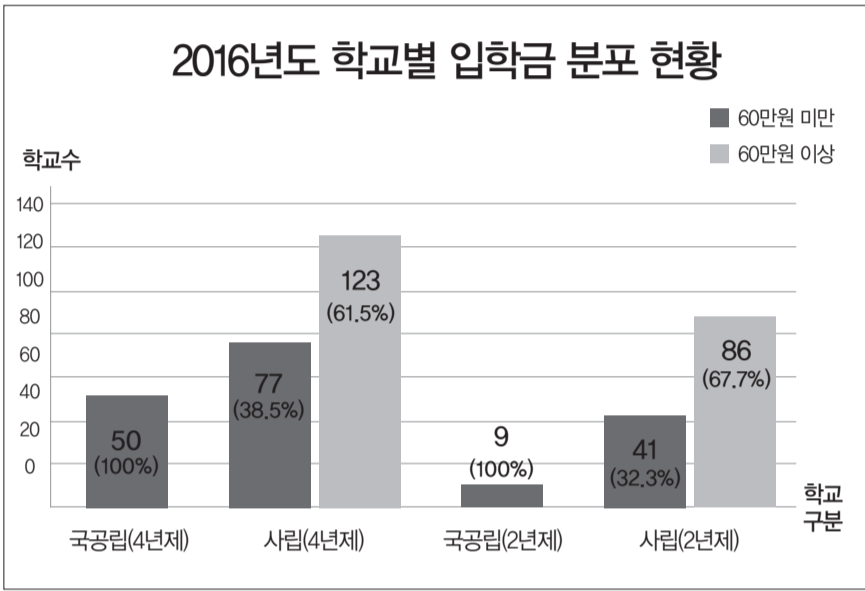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입학금의 산정, 집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 공개 청구 결과를 통해 대학의 입학금에 대한 회계 관리가 부실한 것이 증명된 상태다. 즉, 교육부가 이를 인정하고 이를 작성하는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입학 관련 실비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명분이 없는 돈을 걷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준 실천단장은 "부당한 관행은 끊어내야 한다. 지급이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만큼 입학금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며 입학금이 학생들과 대학 간 불공정거래임을 강조했다.

문지수 기자 answn15@hansung.ac.kr



해결해야 할 숙제, 신용 '뒷북평가'

'2016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이하 신용평가)가 지난 8월에 이뤄졌다. 특히 올해 신용평가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반영하여 대기업에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용평가등급은 AAA에서 D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만약 기업이 여기서 C, D 등급을 받으면, 그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판정된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필수로 정부가 추진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법정관리절차를 밟게 된다. 신용평가의 목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채권은행들이 채무기업의 부실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실기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적과는 다르게, 신용평가가 부실기업을 판가름 하는 지표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그 예로 부실 논란이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해 3조원 가량의 순손실과 약 7300%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우리는 부채비율이 200%가 기록되면 통상적으로 부실 기업으로 추측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7300%라는 부채 비율은 상당한 숫자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은 작년 6월까지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난 해 7월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의 부실이 공개되고 나서야 BBB등급으로 하락했으나, 위의 등급마저도 기업 부채 비율에 비해 상당평가 되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신용등급이 너무 후하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진해운은 지난 해 약 848%의 부채비율을 기록했으나, 2011년에서 2015년까지 A-등급에서 BB+등급을 유지했다. 그런데 2016년 6월에는 B-로 떨어지고, 8월엔 C, 9월에는 한진 해운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황이 반영되어 D까지 하향조정 됐다. 3개월 만에 이뤄지는 급박한 신용평가는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영업 이익 적자를 낸 한진해운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걸친 계단식 신용등급 조정은 신용평가를 일명 '뒷북평가'로 만들었다.

위의 부실기업 평가 오류는 해당산업 분야를 넘어서 한국경제 전반까지 큰 파장을 미쳤다.

부실을 초기 대응하겠다는 신용평가의 목적 자체가 퇴색되는 순간이었다. 만약 신용

평가에 부채비율과 같은 부실문제들이 제대로 반영 됐다면, 기업이 법정관리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조파괴와 일자리 상실 문제의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박승록(경제학과) 교수는 "되풀이 되는 부실기업의 출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의 정확성에 많은 의구심이 존재 한다"며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스템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신용평가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가경제에 대한 피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련된 기업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피해, 그리고 구조조정과정에서 국민의 혈세 낭비 초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투자자는 뒤늦게 부실 기업으로 평가 받은 기업에 대규모 국을 고소한 바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부실기업 전반에 다진다면 대규모 투자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신용평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부실 기업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신용등급	구분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발생이 불가피하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출처: Korea Rating 신용평가

*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다.
* 예비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P"를,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가하며, 구조회금유기래와 관련한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t)"를, 집합투자기금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를 부가한다.

이 기자의 정치사건

'2인자'의 자격, 국회의장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지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며,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공식 의전서열을 따지면, 제 1순위가 대통령이며 국회의장이 곧 그 뒤를 잇고 있다. 말하자면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의 요소 중 하나인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2인자'인 것이다. 국회의장은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 쉽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역시 '직권상정'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보가 문제가 되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이점현 대표가 여당 대표 최초로 단식투쟁에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2인자'가 되는 것은 생각 외로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일단 무조건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어야 하며, 다른 국회의원들은 가능한 '국무위원'과 같은 겸직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한 국회 내의 위원회에는 출석할 수 있으나 표결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특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떠한 '당적'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적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한 것으로, 이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국회의장은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다.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이 바로 그것이다.

'국회대표권'이란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자국의 국회를 관리·감독하고, 외국의 입법부와 외교·교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 내의 모든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는 '의사정리권'도 가지고 있다. 이는 본회의도 예외가 아니라서 만일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면 국회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한다. 더불어 의사정리권 중 특정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올리는 '직권상정'은 의회정치의 와이드카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퇴장 등의 회의장 내 질서유지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국회 내 인사들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사무감독권'을 가지기도 한다.

국회는 대의민주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민주정치의 핵심기관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뿌리가 필요하듯이, 국회의장 역시 꽃봉오리가 아닌 뿌리로서 겸허하게 국회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경계 너머 또 다른 경계, 문 밖에서 난민



출처: UNHCR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변화가를 걷다보면,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다. 가깝게는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듣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유학·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외국인은 약 1천3백만 명이다. 대부분은 비자가 끝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원하지 않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바로 5,711명(지난해 기준)의 난민신청자들이다.

법률상 난민의 조건

우리는 보통 난민을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이재민이나 피난민쯤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법

률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라는 5가지 원인 중 하나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이나 내전·재해 등에 의한 피난민은 위의 5가지 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외에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또한 본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다만, 법률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난민을 위해, 「난민법」에는 별도로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두고 있다.

「난민법」에는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기 위한 절차와 기간 역시 규정하고 있다. 난민 심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로 심사기간이 길어진다. 콩고 출신 난민인 옴베 토나 (광주대학교

자율융복합전공)교수는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가 겪은 고난과 역경은 그의 저서 『내 이름은 옴베』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그가 겪은 일들은 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리며, 수년째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난민인정률 왜 3.42%인가?

우리나라가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난민신청자는 17,640명이나, 불과 3.42%인 604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할 경우에도 인정률은 8.96%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UN난민기구가 밝힌 전세계 난민인정률 37%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치다. 시민단체들은 국제 평균에 못미치는 난민인정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리고 난민인정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꼽았다. 그러나 정부가 난민심사에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존재한다.

정부는 난민 문제에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접근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이 민통제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래서 담당심사관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일단 불인정처분을 내린다. 난민신청자는 대부분 본국을 긴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신청자가 주장한 내용의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난민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현행 심사제도 하에서, 심사관의 부정적 시각과 엄격

한 잣대는 낮은 인정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의신청 등 사후적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심사관들이 비교적 쉽게 불인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 국외추방이 힘들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난민법에는 예외적으로 강제송환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송환 시 국내외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송환은 불가능하다. 이 점 역시 심사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난민신청제도를 국내체류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부추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제도의 허점을 노린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등 171명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난민신청 시 심사기간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

난민을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비판하는 견해도 많다. 시민단체들은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세계인권선언문 제14조에 명시된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제도 도입 초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떠한 신청·허가 제도도 악용이나 남용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난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송환될 수 있다. 그는 난민의 송환은 그들의 생사 문제와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UN난민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UN난민기구 편람에는 '심사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추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UN난민기구의 편람은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며, 난민심사여부와 방법은 계약국 개별의사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쟁점들로 인해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현행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난민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총 9회 발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총 4회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무부 역시 지난 9월에 난민법 개정 방안을 연구할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경관리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난민법 개정 논의가 필요가 시점이다.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출처: UNHCR

난민 인정 이후, 그들의 삶

난민 문제가 심사기준과 절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독재정권이나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의 편견과 생활고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난민의 현실은 만만치 않다.

난민을 채용하는 곳은 대부분 공장 생산직이나 공사현장이며, 직장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업체도 존재한다. 「(사)피난처」의 실태조사(조사기간 : 2015년 4월 ~ 10월)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147명의 인도적체류자 중 24명만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12명만이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110~150만 원의 수입에서 50만 원 가량의 월세와 공공금·교통비를 제외하면, 난민들이 쓸 수 있는 생활비는 거의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6년 기준 1,624,831원)과 비교해보면, 많은 난민들이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난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난민법」 제4장 등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사회적응교육 ▲학력 및 자격인정 ▲미성년 난민에 대한 교육지원 등 난민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규정들은 집행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다. 난민 관련 예산도 많지 않을 뿐더러, 행정집행을 맡은 각 정부부처 간의 협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사)공익법센터 어필」 등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언어 장벽과 담당공무원들의 난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급신청이 취소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난민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고 있거나, 정착지원금이나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난민들은 별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난민의 내일이 달콤해지기를 바라며

유럽에서 잇달아 발생한 테러 사태 이후, 유럽의 국민들은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범이 자국 내에서 테러 행위를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외에도, 올해 7월 독일 바이에른 폭탄 테러 등 유럽 곳곳에서 테러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테러의 위험은 유럽의 난민 수용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의 난민 사태를 목격한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9월 28일 '서울경제'의 난민법 관련 기사에도 '지금이라도 난민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나 쟁거리, 난민들 받아들이는 미친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러한 의견에 반박하는 주장을 담은 글들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난민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난민 문제를 보다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대학로에 위치한 카페 '내일의 커피'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카페는 어느 카페와 다르지 않다. 이 카페만의 특별함은 아프리카 출신 난민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준다는 점이다. '내일의 커피'의 문준석 대표는 2014년 10월 6일

부터 카페를 열었다.

문 대표는 NGO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난민과 만나게 되었다. 난민들과 친구로 지내게 되면서, 그는 난민이 우리가 불쌍하게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문 대표는 난민들이 가진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한다.

난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커피 맛이

어떠신가요? 보통 커피는 쓰다는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커피에는 훨씬 더 다양한 맛과 향기가 존재해요. 이 (난민)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있어요. 이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게, 오히려 우리 사회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페에 걸려있는 '쓰지 않을 꺼야, 인생도 커피도라는 문구처럼, 난민들의 내일도 더 이상 쓰지 않은 날이 오기를 바래본다.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 문준석 대표(좌)와 난민 바리스타(우)

한성人SIDE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관심은 나로부터”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며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를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TAP(Triple A Project)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김현구(정보통신공학 11) 학생은 이 프로젝트에 2기 멤버로서 참여했다. 6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전거로 LA에서 뉴욕까지 횡단하며,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닌,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로서 미국 전역에 알리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Q. TAP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자전거 국토 종주를 마치고 또 다른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TAP를 알게 되었다.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Q.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했나?

하루에 60마일에서 80마일 정도의 목표를 잡고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에 깃발을 달고 횡단을 하는 것이 홍보의 시작이었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물어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외국인들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생소하기에, 이해가 쉽도록 홀로코스트 사건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지역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언론매체를 통한 노출이었다. 한국 사회, 한인사회가 아닌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라디오방송, 지역신문, 대학신문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다. 주로 예배 전후에 양해를 얻어 설명했는데, 엘파소의 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직접 예배 도중에 우리의 프로젝트를 언급해주기도 했다.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모금활동은 하지 않았다. 모금활동을 하면 프로젝트의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 대부분 개인 경비를 사용했다.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길을 알려주거나 홍보처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Q.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

도착한 지역에서 홍보를 못하게 된 경우가 제일 힘들었다. 오후 세시쯤 마을에 도착하면 언론사가 기사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어 프로젝트를 알릴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가장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다.

Q.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에피소드가 있나?

고된 라이딩을 마치고 머물게 된 숙소의 호스트가 장애인이었다.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장애인이지만 핸드사이클링 미국 대회 5연승 우승자이자, 2002년 세계 우

승자였다.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존경스러웠다. 그는 우리가 떠날 때 우승 메달의 리본을 잘라서 나눠주었는데 긍정적인 기운의 징표로 들고 다닌다. 리본을 볼 때마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Q. 다녀온 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

나에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내가 관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나는 더 더욱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

다만, 사회문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미국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인권의 문제라고 알게 되자, 몰랐던 사실에 대해 미안해한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분노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 동행할 약속하기도 한다.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처한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할 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나부터도 그랬다. 이 프로젝트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타인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관심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문지수 기자 answn15@hansung.ac.kr



약산교육문화재단의 양광용 회장을 만나다.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 더 많은 돈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나만 생각하기에도 벅찬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며, 남을 생각하고 있는 약산교육문화재단의 양광용 인터뷰 회장을 만나보았다.

Q. 그동안 어떤 나눔활동을 해오셨나요?

A. 1997년도 12월 3일 IMF관련 뉴스를 접하였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므로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첫 기부활동을 시작하여 20년째 제 고향 완도 약산면의 약산 초등학교에 운동복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산 중·고등학교, 다문화 가정과 노인 요양 시설에도 후원을 하였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실종자 가족을 위해 9000만원 상당의 패딩점포 300벌과 추리닝 바지 300벌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약산면의 장애인 가정과 심장병 어린 이들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Q. 나눔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사회 전반에 있어, 나눔이란 '누군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누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두 나눔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할 뿐, 실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때문에 제가 그 '누군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눔을 '자신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1년에 한번씩, 딱 3번만 한 곳에 정기적인 후원을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 멈출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Q. 어떻게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말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 집약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 광범위한 후원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공동체에 애정을 갖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므로, 나눔을 통해 이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찬바람이 불수록 옷깃을 단단히 여미듯이, 힘든 세상일수록 다른 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나 혼자 먹고살기에도 충분히 힘든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찬바람은 더 거세지기만 할 것이다. 때마침 현실에 봄날이 오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에 대한 사람과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은강 기자 dbdmrskf73@hansung.ac.kr



한성대신문사 창간40주년 토론회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3인 1조)

진행장소 상상관 세미나실(본선, 준결승) 및 미래관 DLC(결승)

시상내역 1위 50만원 / 2위 20만원 / 3·4위 5만원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신문사 보물 증정)

진행일정 예선접수 9/19(월) ~ 10/25(화) 오후 7시
예선심사 10/26(수) ~ 31(월)
본선심사 11/3(목)
준결승전 11/10(목)
결승전 11/17(목)

예선참가방법

- 참가신청서 / 발제문(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제출
- 신청서, 토론주제, 본선 진행 세부사항은 교내홈페이지 '한성공지', 한성대신문사 블로그에 공지
- hansungnews@gmail.com(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hansungnews@gmail.com
박종민 편집국장 010-6425-4852, toad1013@naver.com
한성대신문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파괴는 예술적 창조의 시작

백남준의 작품을 통해 알아본 현대예술

예술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예술'이라는 극단적인 견해가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밀로의 비너스, 베토벤의 교향곡 등을 쉽게 떠올린다. 즉, 그림이나 음악 등에 있어서 비율, 구성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들이 작품 속에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예술에서는 '형식'을 깨트리려는 것 또한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플럭서스'다. '플럭서스'라는 이름은 '흐름'을 뜻하는 라틴어 플럭스(flux)에서 유래했으며 행위 예술의 한 형태다. 『플럭서스 예술혁명』의 저자 전선지는 "엘리트 예술을 반대하는 예술가들에 의해 1964년 이후 뉴욕 소호에서 예술집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들어냈다. 플럭서스는 직선적인 과학과 권위가 만들어 놓은 신화를 깨고, 모든 전통개념에서 자유롭고, 창작자와 수용자가 일체가 되길 원했다. 창작자와 수용자가 미래를 사유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길 바랐다. 그들은 변화에서만 새로운 것이 등장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변화를 추구했다"고 플럭서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이러한 플럭서스 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백남준'이다. 그는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첫 전시회를 열 때, 전시 제목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라고 붙였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음악이 과연 전시 될 수 있는 것인가'이다. 이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 중 '총체피아노'는 그 형상부터 기괴하다. 피아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은 철조망, 전등, 강통 등이다. 이것들은 피아노 이곳저곳에 부착되어있다. 연주자가 피아노를 두드릴 때마다, 전등이 켜지거나, 타악기 소리가 난다. 이에 대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활동했던 안소현 독립 큐레이터는 "총체피아노는 관객이 느끼는 두려움, 공포를 포함하는 공감각적인 작품이다. 또한 관객은 이것을 단순히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작품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백남준은 음악을 청각을 통해 수용한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렸다. 즉, 그는 예술 간의 장르를 해체함으로써 당시 예술계에 파장을 남겼다.

새로운 매체의 도입 또한 현대 예술의 한 형태다. 우리가 백

남준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비디오아트'다. '비디오아트'란 텔레비전과 같은 비디오매체를 표현수단으로 한 예술을 말한다. TV는 대중이 쉽게 즐기는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TV는 불균형한 관계를 이루어왔다. TV보급 단계의 초기에는 그것이 가지는 특징, 즉 '일방향적 송신' 때문에 대중은 TV에서 송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했다. 따라서 백남준은 TV에 의한 대중지배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 고민하였으며, 이에 예술적 해석을 가하여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다. 즉, 비디오 예술의 등장 배경은 TV와 대중이 갖는 불통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중을 작품에 끌어들여 소통하려고 한 것이다.

그는 1965년 '자석TV'이라는 작품을 출품함으로써 비디오매체가 가지는 불통의 문제에 예술성을 덧씌웠다. 이 작품은 관객이 자석을 이용하여 TV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가진다. 즉, 관객들은 TV앞에 놓인 말굽자석을 브라운관 앞으로 이동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TV를 통해 추상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며 비디오 예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정보독점의 상징인 TV는 관객이 자석을 갖다 대는 순간 그것의 기능은 무용지물 이 된다.

근대예술과 현대예술을 나누는 시점은 불분명하며, 현대예술의 정의 또한 불분명하다. 하지만 백남준을 통해 알아본 현대예술의 특징이 형식의 파괴, 장르의 해체, 새로운 매체의 활용 등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때 '동양에서 온 문화테러리스트'로 불렸던 백남준, 하지만 그는 이제 현대예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유동현 기자 ehdvfk6392@hansung.ac.kr



▲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작품 '거북'이다. 그는 TV와 같은 테크놀로지서 예술의 가능성을 보았다.

오늘의 강연 **백남준은 누구인가?**

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 백남준



▲ 백남준이 인터뷰 영상을 통해 그가 비디오아트를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백남준을 생각하면 비디오아트 의 창시자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음악학도였으며, 일생동안 5개의 교향곡을 만든 작곡가였다. 더불어 그는 예술가로서 액션뮤직과 전위예술을 즐겼다.

우리는 이 같은 백남준의 발자취를 위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백남준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부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에 먹물을 묻혀 그림을 그리는 장면 등은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게다가 영상에는 백남준이 타매체와 함께한 인터뷰가 더해져, 창작자의 목소리를 통해 비디오아트를 만들게 된 계기를 들 수 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백남준이 기획한 위성 생방송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로써 그가 지향했던 예술을 잠시나마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가의 역할과 덕목이 무엇인지를 영상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과거 작곡가 백남준으로 시작해서, 비디오예술가 백남준 그리고 전설이 된 백남준까지, 위의 6분짜리 영상은 그의 일생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 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 백남준의 삶이 궁금하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박혜미 기자 hmz1324@naver.com

본 영상은 우측 ▶ QR코드 연결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화폐는 더 이상 '돈'이 아니다



화폐의 몰락

저자: 제임스 리카즈
출판사: 울리시즈
출판일: 2015.09.10.
책소개: 『화폐의 몰락』은 수십년간 금융분야에서 일해왔던 저자가 현재 세계의 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책에서 저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새롭게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굴지의 입지를 가진 IT는 물론 국가들이 모인 초국가단체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는다.

단 한번이라도 '달러' 없는 국제시장을 생각해보면 적 있는가? 총과 폭탄 대신 증권을 손에 쥐고 미국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는? 아니, 화폐가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상상만이라도 해본 적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이 책은 자본이 인간들의 손에 수월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이런 현대인들의 오만을 단도직입적으로 꼬집는다. 화폐는 더 이상 돈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어떠한 빙기보다도 세련된 방식의 '전쟁 빙기'이며, 세계 금융시장이 자초한 '괴물'일 뿐이다.

이 책의 저자는 단순히 금융계의 사실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역사적인 부분까지 되짚어보며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부상에 주목한다. 먼저 이 책은 더 이상 자본이라는 '괴물'이 인류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회사의 주가가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에 폭락한다고 생각하지만, 월가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영악하다. CIA와 같은 정보당국조차 모르는 극비정보를 이미 증권가는 사전 전에 눈치 채고 주가를 움직인다. 흔히 '나비효과'로 대변되는 복잡계 이론을 통해 이미 인간의 인지를 아득히 뛰어넘은 음

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이 자본은 국가간의 금융전쟁의 주요한 '전쟁빙기'로서, 무엇보다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나 적성 국가에게도 유효한 '합법적인 수단'임을 경고한다. 이 책은 이러한 세계위기를 검토하고, 이미 신뢰를 잃은 현 금융질서를 대체할 대안으로 새로운 금융질서를 제시한다. 새로운 세계통화와 금본위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저자의 경력이나 식견에 짓눌려 이 책을 단순히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일단 이 책은 불친절하다. 예를 들어 '브레튼 우즈 체제'를 알지 못하는 이상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했다는 소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노골적인 편들기 역시 비판해야 할 점이다. 중국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독일에는 의아하리만치 호의적이다. 마지막으로 오직 '끊임없는 자본의 실패'만을 말할 뿐, 결국 세계가 이 자본의 실패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정상화시켰다는 것은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책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책이 던지는 의미심장한 물음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미래에는 인류가 자본을 지배할까, 아니면 자본이 인류를 지배할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현금의 새로운 시작, 지폐 없는 사회

필자의 지갑은 체크카드 하나와 학생증 그리고 교통카드가 전부다. 혹시 몰라 지갑에 들고 다녔던 만원은 이제 카드 속에 녹아 있다. 그리고 이 카드는 필자의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필자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의 결제 비중은 70%, 현금 결제의 비중은 17%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수치는 기술 발전에 따라 양극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 추세를 몰아 2020년까지는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나아가 '지폐 없는 사회'를 최종 목적으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현금의 사용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인지를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현금 사용의 불편함에 있다. 현금은 고액권과 소액권, 그보다 더 작은 범위의 동전까지 나누어져 있다. 고액권을 가게에 지불하고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소액권과 동전을 거슬러 받는 행위는 카드 결제와 비교했을 때 번거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지폐는 사회적 부차용을 유발한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케네스 로고프는 그의 저서 『화폐의 종말』에서 지폐가 지하경제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값 비싼 물건들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런 물건들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며, 거래허가를 받은 업자들은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금으로의 교환이 까다롭다. 그러

나 지폐는 다른 거래수단들에 비해 유용성이 높고 그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범죄의 주된 거래수단으로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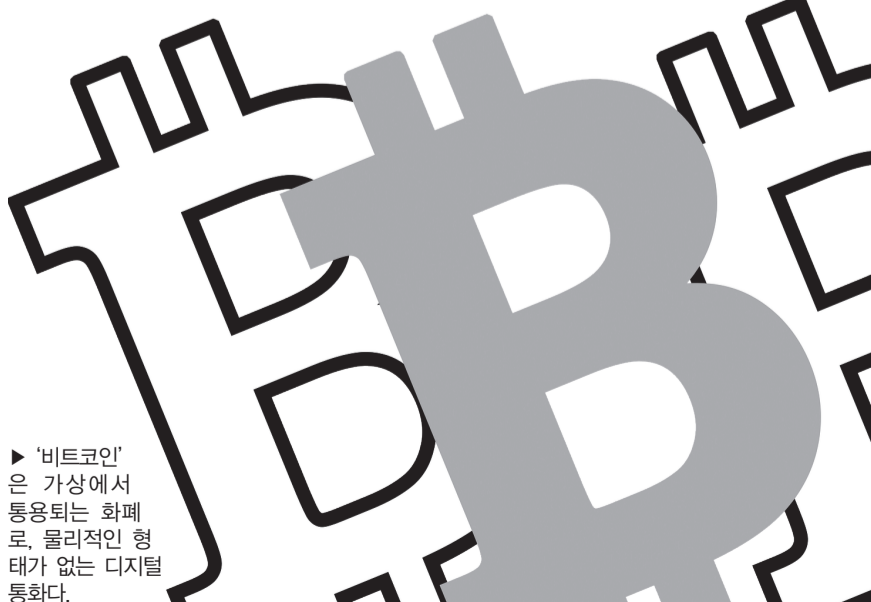
또한 지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사람들의 은행 예금을 억제하여 시중에 돈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지폐를 보유만 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정책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이유로 지폐가 사라진다면, 현금의 대체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디

지털 통화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파일 형태로 보관돼 해킹과 같은 보안문제가 우려됐다. 그리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로, 장부 자체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져 해킹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대부분 지폐라고 하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화폐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폐는 전자, 모바일 등으로 그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지폐 없는 사회가 도래할 때 현금 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할지 기대가 된다.

박혜미 기자 hmz1324@naver.com



▶ '비트코인'은 가상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디지털 통화다.

의화정

본고는 2017년부터 총 44개의 트랙을 통하여 학사과정을 운영한다. 인문학부의 잠정안을 예를 들자면, 기존의 한 학과가 두 개의 전공트랙을 운영하며, 하나의 트랙을 졸업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39학점을 이수한다. 모집단위광역화를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트랙을 선택하지만, 교수들은 기존 학과에서 나온 두 개의 트랙에 소속된다.

여기에는 생각해 보아야할 점이 있다. 한 학과에서 운영하는 두개의 트랙은 사실상 이전 학과의 전공을 두 개로 세분화 한 것이고, 이전 학과의 교수진이 소속된다. 따라서 외부 평가자들이 볼 때에 이러한 운영은 기존의 학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 전공을 세분화한 것 정도로 보일 수 있으며, 트랙제

트랙제 시행을 준비하면서

도입의 취지였던 융복합 교육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각 학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숙했던 학제가 지속되더라도 걱정이다. 트랙제의 경우는 학부제와 달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상 학생들의 풀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 같은 학과에서 나온 비슷한 성격의 두 트랙의 경우 한 트랙이 학생이 없어 소멸하면, 나머지 하나도 같은 길의 걷게 될 공산이 크다.

계속되는 트랙제 운영과 관련된 회의들 통하여 느낀 점은 실현 불가능한 두 가지의 입장이 고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예전의 학과제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이는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며, (인문대의 경우 이미 67명까지 줄어

든) 야간정원으로 이전과 같은 학과제가 운영될 수 있다는 오판에서 비롯된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융복합 교육을 중심으로 단대의 성격을 과격적으로 쇠신하자는 논의이다. 이는 상이한 학문의 성격과 학내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준비에 따르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결국 이러한 양극단의 사고를 지양하고 본다면, 우리가 할일은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특정 트랙의 폐지를 막아 줄 수 있는 모델의 확보이다. 신입생들 개개인을 챙길 방안도 필요하다. 트랙제가 진로선택을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만 맡기는 방식이라면, 학생들의 합리적인 설계를 도울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재철 교수(영어영문학부)

삼학송

‘직업적 양심’은 어디에

지난 9월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쓴 대자보가 붙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고 백남기씨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에서 직접사인을 ‘심폐정지’, 사망 종류를 ‘병사’로 규정했다.

의대생들은 대자보에서 이 두 가지 규정을 문제 삼았다. 먼저 ‘심폐정지’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직접사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확실히 심장과 폐가 멈추는 것은 사람이 죽었음을 알리는 신호이지, 그 자체가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사망진단서에 적힌 다른 사인들과 함께 읽으면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 사인으로 적는 것은 분명한 실수다.

또한 ‘병사’ 판정에 대해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인사’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명시했다. 특히 고 백남기씨의 경우 경찰의 물대포를 머리에 직격으로 맞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에서도 ‘급성경막하출혈’을 사인에 명시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외인사’로 볼만한 정황은 충분하다.

의대생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다. ‘이 상황이 상식에 어긋나니, 관련자들은 빨리 해명을 하고, 유족들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아

주 매대한 답을 내놓았다.

먼저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모든 사망진단서는 객관적인 주치의의 판단 아래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 백 씨 사망진단서 역시 담당 주치의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금 나온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주치의의 철학을 존중한다’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의협에서는 아예 ‘병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쓴 것은 의협 사망진단서 내부 지침에 어긋남이 없다고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의협에서 발간한 ‘진단서 작성·교부 지침’을 살펴보면, ‘심폐정지’를 사인으로 쓰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점입가경으로 경찰은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주체가 부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부검을 하는 것과 사망진단서가 조작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 오히려 경찰의 ‘떼쓰기’에 시민들의 혼란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만 더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선배 의사들에게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인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자신들이 앞으로 짊어질 직업적 양심까지도 행거려는 학생들 앞에서, 지금 맡은 직업적 양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

박종민 편집국장

기자수첩

주인공이 등장해 악당을 처부수고, 문제적 상황들을 깔끔하게 해결해내는 영화의 엔딩은 우리에게 통쾌함을 선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현실에서도 복잡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릴 영웅을 찾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다. 그리고 그런 욕심이 때로 망령된 허상을 불러낸다.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에 세워진 그의 동상과 모형물에 대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현존인물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워싱턴포스트지 기자는 기사에서 ‘반기문 우상화는 마치 북한을 연상시킨다’라고까지 언급했다. 결국 지자체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동상을 철거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에도 정치적 문제가 얽히면서 후폭풍이 일었다. 동상 제작 목적이 지역홍보였는지 아니면 반 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동상 제작의 선결조건이 ‘우상을 좋아하는 대중들’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때때로 미화된 영웅이 ‘만들어’진다. 물론 난세에 영웅의 탄생은 바라는 것은 고리직 시절부터 계속된 민초들의 몇 안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단, 그 시대적 배경이 왕정·제정 혹은 파시즘이라는 전제 하에서.

반면 민주주의는 영웅 대신에 ‘나와 비슷

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 세상에서의 ‘선택과 수용’,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한다. 버튼을 대신해 눌러줄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지 않고, 개인들이 스스로 서기를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셈이다. 그래서 더 이상 영웅을 바라는 것은 안된다. 영웅의 등장을 원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현실에는 드물어 찾을 수 없는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해 과장과 미화가 판을 칠 것이고, 결국에는 또다시 ‘동상’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무수히 많은 ‘백마탄 초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웅에게 내어줄 자리는 없다.

김민식 기자

낙산에 올라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 연속해서 세 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역대 관측 중 최고치인 규모 5.8의 지진도 있었다. 더불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울산과 경주, 즉 산업단지 및 원자력 발전소가 모여 있는 지역이고, 활성단층에 대한 분석도 속속들이 발표됨에 따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안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비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었다. 경주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던 날,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서는 뉴스속보 대신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다.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재난문자 역시 지진이 난 후 십여 분이 지난 시간아야 일부 국민에

재난대비, 이대로 괜찮을까?

게만 발송되었다. 국민들은 직접적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겨우 지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행동 요령 또한 직접 찾아봐야만 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SNS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지진으로 아이들이 대피하려 하자 교사들이 “지진이 대수나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지시했다는 글이 트위터 등지에 올라왔다. 심지어는 휴대폰 사용을 통제했다는 게시물도, “기숙사에서 나오면 벌점을 주겠다”는 방송을 했다는 글도 발견되었다. 2년 전 4월,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이 벌써 잊어버렸을까?

고등학교 때, 한여름에 소방 대피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일제히

질서를 지켜 운동장으로 나왔어야 했고, 몇 시간 동안이나 그늘도 없는 운동장 한 가운데 한없이 서있어야만 했다. 제대로 된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도 없이,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염없이 서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2016년 현재, 정말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은 교실 밖을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비상시 구호물품은 각자 가정에서 준비하라’고 공고하는 국민안전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공부나 마저 하라는 어른들. 정부에서도 교단에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황순근(지식정보 4)

낙산만평

박종민(국문 3)



한성대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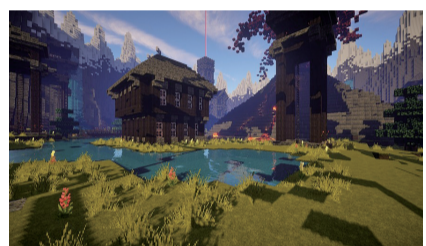
제 31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기간 2016년 9월 19일부터 ~ 10월 17일 오후 7시까지 ✓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 주제 자유(주제에 제한이 없음) ✓ 제출형식 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 제출사항 응모작 /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한성대 신문 519호(11월 28일 발행예정) ✓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원 및 상패 시 : 40만원 및 상패 ✓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박종민 편집국장 010-6425-4852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이 없을 시 기적만 시상합니다. 	
---	--	--



게임에도 '수제품'이 있다, 인디게임의 세계

인디게임(Indie Game)은 '독립게임'이라는 뜻처럼 유통사나 회사와 같은 기업이 아닌 개개인이나 소규모 자생적인 개발팀이 만들어낸 게임들을 말한다. 인디게임은 기존 회사들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기존 게임업체들이 만들어낸 게임이 잘 만들어진 '공산품'이라면 인디게임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수제품'이다.



▲ 인디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 지은 건축물

게이머를 사로잡은 인디의 감성

마인크래프트(Minecraft)라는 이름을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마인크래프트는 게임 내 세계 전체를 다양한 특성의 블록으로 구성한다. 플레이어는 무작위적으로, 또 무한히 생성되는 세계와 낮과 밤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는 다양한 환경에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건축물을 짓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마인크래프트는 세계 전체가 블록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와 크기에는 제약이 없다. 중세의 성, 고즈넉한 오두막, 현대적인 빌딩까지 충분한 시간만 들인다면 판타지 영화나 불법 건축물도 가능하다.

마인크래프트는 1억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인디게임계의 슈퍼스타이다. 이 게임이 제공하는 놀랍고도 자유로운 경험은 인디게임만의 감성이 잘 묻어나온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게임방식으로 '인정성'을 추구하는 게임업체와는 다르게 인디게임은 다

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한다.

그 예시로 200만장이 넘게 팔린 '아이작의 구속(The Binding of Isaac)'이 있다. 이 게임은 기괴하고 음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만 같은 둥글둥글한 모습과 그로테스크함이 혼재된 이 게임의 독특한 그래픽에는 가정폭력으로 점철된 개발자의 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일종의 '광기'마저 묻어나오는 이 게임적 상상력은 인디게임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독특한 시도였다.

예를 들어 게임업체의 기획팀이 투자자에게 개발예정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게임의 그래픽은 아동용 카툰그래픽이지만 표현되는 것은 역겹고 그로테스크한 것들입니다. 또 공포게임은 아니지만 개발자의 어린시절을 반영해서 불안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상충적으로 조성할 것이며, 심지어 그 흔한 세이브 기능도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을 때 투자자가 "와우, 그거 정말 환상적인 아이디어군요. 출시되면 분명 200만장쯤 팔릴 겁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투자자는 정신병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성 기업들이 시도할 수 없는 '인디감성'이야말로 인디게임의 진정한 매력이자 무기라고 할 수 있다.



▲ '아이작의 구속'은 어둡고 기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 텀블벅에서 펀딩 중인 인디게임 '가이아의 시련'

한국에서 '인디게임 개발자'라는 것

인디게임의 개발은 개발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서로 팀을 이루어 진행한다. 딱히 자격이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취재에 응한 인디게임 개발팀 Clickmation의 대표 김정민(20)씨와 임경민(20)씨도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에 '가이아의 시련'이라는 펀딩을 낸 여섯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다.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제작의 자유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장르, 콘텐츠, 구동환경 등 기획에서부터 실질적인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들이 제작하기 때문이다. 김정민씨 역시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며 인디 게임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만약 그가 게임업체를 선택했다면 말단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자리까지 십수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인디게임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다. 그래픽과 같은 기술력은 게임업체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콘텐츠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번에 이들이 제작한 '가이아의 시련'도 초기에는 퍼즐이라는 컨셉만 있었지만, 이후 RPG적 요소와 전략적인 요소를 대입하여 색다른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발팀은 게임이 나올 때까지 마땅한 보수가 없는 특성상, 보통 지인들이 의기투합하여 구성된다. 팀 Clickmation도 중학교 때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기투합한 김정민씨와 임경민씨를 중심으로 한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인개발이 아닌 이상은 '인맥이 금맥'이란 말은 인디게임계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인디게임 개발팀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외국에는 '스팀 그린라이트'나 '키스타터'와 같은 자체적인 홍보와 펀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클라우드 펀딩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탓에 아예 외국에 인디 게임을 출시하는 국내 개발자들까지 있는 형편이다. 임경민씨 역시 "만들어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며 국내의 황량한 인프라를 지적했다.



▲ '가이아의 시련' 역시 새로운 시도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인프라는 바로 '게이머들의 관심'이다. "국내에서는 인디게임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말한 김정민씨의 말처럼, 무작정 '열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제는 현실적인 면에서 게이머들의 관심이 중요한 때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김정민 팀장



임경민 리드 프로그래머



'너'가 시들어버린 '나'만의 거리

만약 세상에 '너'가 없다면 어떨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너'와 '나'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교육받아왔던 배려, 규칙, 예의 등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직장을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할 것이며, 친구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자신에게 피해만 없다면 '어차피 남의 사정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니·허노 작가의 '내가 없는 세상'은 모두가 '남의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준다. 어느 날 세상에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퍼진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뇌에 침입하여 '너'에 대한 개념을 지워버

린다. 자신 외에 다른 모든 사람, 가족과 친구조차도 그저 '남'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자신의 학업과 직업 등도 버리고, 현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1순위로 여기게 된다. 이로 인하여 길거리에선 대낮에도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가 행해지고, 이를 규제할 경찰조차 없어 병이 확산될수록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파괴된다.



▲ 네이버웹툰 '내가 없는 세상'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 김창익과 그의 친구들은 무법지대가 된 바깥 상황과 전염에 대한 공포로 인해, 한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정된 자원과 전염에 대한 공포라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 '나'와 '너', '우리'였던 친구 관계가 무너져간다. 그리고 한 때는 친구였던 공동체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만이 남았을 때, 이를 지켜보던 김창익은 밖으로 뛰쳐나온다. 그리고 이 전과는 달린 세상을 보게 된다. 백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들과 비감염자들이 공존하며 사회 시스템을 재건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김창익은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지 않던 원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임을 깨닫는다.

사실 우리는 단 한번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진 적이 없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수많은 '너'들과 함께해왔으며,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너'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이를 잊

고 살아가며, '나'외에는 모두 '남'이 되고 있다. 타인의 이름, 혹은 사회적 문제를 접하더라도 그저 흘러 넘기는 반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는 그 표본이다.

언 땅에서 꽃이 자라지 못하듯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병후해진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생길 수 없다.



▲ 무법지로 변해버린 세상. 길거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사고가 난 차들이 버려져 있다.



▲ 같은 학교 친구를 때려눕힌 교선과, 이를 남겨둔 채 떠나는 창익과 철수

그러므로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자신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봐야 할 시점이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hansung.ac.kr

사진 출처 : 네이버웹툰